

사회



지난달 31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가장 먼저 개학한 서석초등학교 정문에서 교사들이 고막형 체온계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르포 - 신종플루 확산 속 개학 광주서석초의 긴장된 하루

정문에 줄지어 1시간 발열 체크 손 소독약 등 비치 예방 교육도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지역 초등학교 중 가장 먼저 개학한 서석초등학교 등 12개교는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여부를 검사하느라 분주했다. 나머지 133개 초등학교는 1일 개학한다.

타 초등학교에 비해 하루 일찍 개학한 서석초 교사들은 이날 교문에서 고막형 체온계를 들고 아이들을 맞았다. 서석초교는 전교생이 37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학교이지만, 김은미 보건교사 등 2명이 체온계 2대로 아이들의 발열을 체크하는 데 1시간여가 소요됐다.

다행히 신종플루를 의심할만한 아이들은 없었지만, 교내 곳곳에 손 소독약과 물비누 등을 비치하고, 아이들에게 신종플루 예방 요령을 교육하는 등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오전 10시에는 개학식에 앞서 이 학교 김은미 보건교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5분여 동안 신종플루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서석초교는 당분간 교문앞에서 매일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신종플루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아이들도 신종플루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가 하면, 개인용 손 소독약을 준비해온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신종

플루의 공포에 휩싸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2학기 수업을 준비하느라 즐거운 표정이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발열 체크 등 꼼꼼한 대처법을 확인한 뒤 다소나마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학생들 긴장감 적고

학교측 꼼꼼한 대처

학부모들 다소 안도

한 학부모는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아이의 등교를 미룰까도 했는데, 학교측의 준비가 철저해 그나마 안심이다"고 말했다. 이 학교 4학년 이연수양은 "등교때 체온을 측정해 다소 긴장도 났으나 이젠 괜찮다"면서 "손을 자주 씻어야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 이날 하루에만 10번도 넘게 손을 씻었다"며 활짝 웃었다.

6학년 국찬우군은 "건강한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려도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주 씻고, 밥 맛

있게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55) 서석초교 교감은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에 대처하기 위해 체온계를 구입하고, 각종 위생용품도 비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서 "다행히 오늘은 아무일 없이 넘어갔지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감염될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해 예비비 9억여원을 긴급 투입했다.

예비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도서관 등 산하기관 535곳에 손 세정제와 위생 수건, 체온계 등 위생물품 구입비로 사용된다. 학급수가 8천70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학급당 10만원 꼴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앞서 각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학생 개인위생 강화, 교실과 주변에 철저한 방역 등을 지시했다. 또 감염 학생 발생 정도에 따라 휴교나 휴업, 등교금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매일 학생과 교직원 건강상태 점검, 가정과 학교에서의 개인위생 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지원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이중형기자 golee@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종플루 확산 음주단속 할까? 말까?

음주단속 할까? 말까? 최근 신종 플루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전남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음주 측정 방식 때문에 운전자와 경찰관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종 플루와 관련, 음주단속 업무지시를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달 28일 신종 플루

측정기에 감염 우려

와 관련, 음주측정기 1인1회 사용과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 거리 유지, 음주감지기 표면 소독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은 우선 음주감지기 표면을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독한 뒤 5분 후 재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감지기 표면은 단속 대상자의 입김에서 나온 미세한 침 방울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커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 감염의 우려가 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의 표면에 입을 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또 음주측정기는 한 번 사용된 후 반드시 전량 수거해 폐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단속경찰관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 검감, 불구속 수사키로

대검찰청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피의자를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습스

전남대병원 교수, 전공의들에 "성매매 비용 내라" 강요 파문

가족들 주장... 병원측 진상조사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가 자신의 성매매 비용을 전공의들에게 대신 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대병원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한전공의협회의 회는 경찰에 수사요청키로 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이 병원 모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수시로 성매매 비용을 부담토록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가 나섰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한 전공의 가족은 "해당 교수가 일주일에 수 차례씩 회식을 하고 회식비 모두를 전공의에게 부담케 하고 있으며, 회식 마지막에는 주점에 가서 성매매 비용까지 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술값과 성매매비로 수백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자는 "지난 해 학회 때는 호텔 방으로 윤락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윤락여성을 구하지 못해 안마시술소를 이용하고 전공의가 그 비용을 계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일보는 해당 교수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다음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해당 교수가 근무하는 진료과목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회의 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의 요청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의 처리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당국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진 대한전공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전공의는 물론 의료계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해당 교수에게 국립대대학교의 교육자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국인 유학생 21명에 재직증명서 위조·판매

전남경찰, 2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31일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판 중국인 왕모(28)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모 한자능력 검정위원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중국인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학생 21명에게 장당 2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왕씨로부터 증명서를 산 중국인 유학생들은 허위 증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업을 피하고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씨는 중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하루 전에도 가짜 증명서를 팔기 위해 서울의 한 지하철거를 찾았다가 중국인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왕씨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3장과 사단법인 대표의 직인 등 도장 4개, 인쇄용지 130장 등을 압수했으며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동창생에 교통사고 자해공갈

곡성경찰, 대학생 4명 영장

곡성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안모(20)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5월 19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최모(1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최씨에게 운전을 하게 한 뒤 교통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이 사고로 합의금 3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6월 2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1천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등은 면허증이 없는 동창을 불러내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몰도록 했으며, 범행 장소에 도달할 무렵 공범에게 문자나 경적으로 도착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병원 협박 돈 뜯은 보험사 직원들



○...소규모 병의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간 큰' 보험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병·의원 관계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챈 김윤모(49)씨 등 보험사 직원 4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4월 8일 광주시 광산구 모 식당에서 의원 사무장인 A(51)씨에게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3곳으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 관계자는 "윤씨 등은 보험사 지역센터장과 팀장, 사원, 본사 조사과장으로, 상당수 병·의원들이 고발 등 번거로운 일을 꺼린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고 설명.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ungnamdal' (상남달) newspape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bundle and promotional text.